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
48주년 기념식

제28회 통일언론상 시상식

제34회 안중필
자유언론상 시상식

일시 2022년 10월 24일(월) 오후 3시

장소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주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 한국기자협회

▶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
48주년 기념식

▶ 제28회 통일언론상 시상식

▶ 제34회 안종필
자유언론상 시상식

일시 2022년 10월 24일(월) 오후 3시

장소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주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 한국기자협회

목차

제1부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 48주년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문

자유언론실천선언 50주년 사업준비위원회(기초안)

제2부

제28회 통일언론상

심사평

수상 소감

역대 수상작

제3부

제34회 안중필 자유언론상

심사평

수상 소감

역대 수상작

별첨

평화통일과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준칙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명단

행사
순서

사회 _ 김혜민 YTN라디오 PD

제1부 |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 48주년 기념식

15:00 ~ 15:30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문 낭독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인사말	허육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장
	기념사	최지원 한국PD연합회장
	축사	함세웅 신부
	자유언론실천선언 50주년 준비위원회 공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

제2부 | 제28회 통일언론상 시상식

15:30~16:00	심사평	정일용 심사위원장
	▶ 특별상 시상 및 수상소감 KBS <다큐인사이트> '간첩과 섬소녀' MBC <영상기록 남북철도, 기적의 오디세이>	시상: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

제3부 | 제34회 안중필 자유언론상 시상식

16:00~16:30	안중필 자유언론상 심사평	이완기 심사위원장
	▶ 33회 본상 시상 및 수상소감 영화 '표적' 니시지마 신지 감독	시상: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34회 본상 및 특별상 시상 및 수상소감 한겨레 기후변화팀 경남도민일보 '노동자의 외침, 메이데이 연속 기획 보도'	시상: 성한표 조선투위 위원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폐회	사진촬영

제1부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
48주년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문
자유언론실천선언 50주년 사업준비위원회(기초안)



우리는 오늘날 우리사회가 처한 미증유(未曾有)의 난국(難局)을 극복(克服)할 수 있는 길이 언론(言論)의 자유로운 활동에 있음을 선언(宣言)한다.

민주사회(民主社會)를 유지하고 자유국가(自由國家)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기능(社會機能)인 자유언론(自由言論)은 어떠한 구실로도 억압(抑壓)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것임을 선언(宣言)한다.

우리는 교회(教會)와 대학(大學)등 언론계(言論界) 밖에서 언론의 자유회복(回復)이 주장되고 언론인의 각성(覺醒)이 촉구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뼈아픈 부끄러움을 느낀다.

본질적으로 자유언론(自由言論)은 바로 우리 언론종사자들 자신의 실천(實踐) 과제일 뿐 당국에서 허용(許容)하거나 국민대중(國民大眾)이 찾아다 쥐어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언론(自由言論)에 역행(逆行)하는 어떠한 압력(壓力)에도 굴하지 않고 자유민주사회(自由民主社會) 존립(存立)의 기본요건(要件)인 자유언론(自由言論) 실천(實踐)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宣言)하며 우리의 뜨거운 심장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決議)한다.

1. 신문(新聞), 방송(放送), 잡지(雜誌)에 대한 어떠한 외부간섭도 우리의 일치(一致)된 단결(團結)로 강력히 배제(排除)한다.
1. 기관원(機關員)의 출입(出入)을 엄격히 거부(拒否)한다.
1. 언론인(言論人)의 불법연행(不法連行)을 일절 거부한다. 만약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불법연행(不法連行)이 자행되는 경우 그가 귀사(歸社)할 때 까지 퇴근하지 않기로 한다.

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사 기자 일동

자유언론실천선언 50주년 사업준비위원회(기초안)

●● 취지와 의미

- ▶ (2년 후인) 2024년 10월 24일은 한국언론사의 기념비이자 언론운동의 원형질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언론실천선언 50주년
- ▶ 50주년 사업은 반세기라는 긴 시간적 의미와 당시 선언 참가자들의 고령화(물리적 나이) 등을 감안하면 역사적 총정리이자 이후 자유언론실천선언 계승 발전을 향한 또 다른 시작의 의미
- ▶ 이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준비위원회를 2022년 10월 24일 자유언론실천선언 48주년 기념식에서 출범시키도록 함

●● 주요 사업(안)

기록	『자유언론실천선언 50년사』 『자유언론실천선언 화보집』 발간 <자유언론실천선언 50년 다큐> 제작 <유신과 자유언론>(가제, 영화 제작) 선언 참가자 영상 증언 기록 제작
행사	<자유언론실천선언 50년과 한국 언론> 학술 세미나 자유언론실천선언 50주년 기념 공연 추진
기타	작가회의와 공동 사업 추진

※ 사업과 예산은 대강의 초안이며 준비위원회 정식 발족 후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

●● 예산(안) (2022.11~2025.04)

- 언론 현업 시민단체 각출(1억)
- 언론 현업자 및 시민 펀딩(1억)
- 지정 기부금(기업 등) 모금(3억)
- 기타(언론진흥재단 출간 지원 등 요청)

●● 준비위원회 구성(안)

- ▶ 고문 : 김종배(재단법인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이사장), 함세웅(신부님), 이해동(목사님),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김종철(자유언론실천 재단 초대 이사장), 허 욱(동아투위 위원장), 성한표(조선투위 위원장), 신흥범(조선투위 전 위원장), 현이섭(80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 ▶ 공동 위원장 : 조성호(재단 감사), 이진순(민언련 상임공동대표), 김동훈(기자협회 회장), 윤창현(언론노조 위원장), 최지원(PD연합회 회장)
- ▶ 위원 : 이완기(새언론포럼 회장), 최성주(언론연대 공동대표), 강성남(새언론포럼 부회장), 김동현(동아투위 총무), 이명순(동아투위), 최병선(조선투위), 신미희(민언련 사무처장), 박은중(언론노조 사무처장), 김용만(기자협회 총괄본부장), 이선민(PD연합회 사무국장), 김순애(방송기자연합회 사무국장), 김재훈(방송기술인연합회 사무처장), 박강호(재단 상임이사), 이영순(재단 사무국장)
- ※ 준비위 내 <50년사 출간 소위원회> 등 소위 구성은 준비위 출범 후 논의를 통해 구성

●● 일정

- 22.09.06 재단 기획편집위원회: 초안 논의
- 22.09.16 동아투위 월례회: 보고 및 보완
- 22.09.28 재단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논의
- 22.10.12 재단 이사회: 확정
- 22.10.24 자유언론실천선언 48주년 기념식에서 준비위원회 발족 공표

제2부

제28회 통일언론상

통일언론상 심사평

수상 소감 —

KBS 다큐인사이트 '간첩과 섬소녀'

MBC 영상기록 남북철도, 기적의 오디세이

역대 수상작

제28회 통일언론상 심사평

정일용 심사위원장,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지난 13일 오전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제28회 통일언론상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순서에 따라 한국PD연합회가 주관했고, 심사위원은 현업 3단체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가 3명씩 추천,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에는 모두 여덟 편이 출품됐습니다. 응모작품 수도 적었지만, 이 모두가 방송매체에서 나왔고 인쇄매체 쪽에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응모작은 심사 일주일 전 심사위원들에게 미리 전달됐고 대면 심사회에서 각 작품에 대한 토론을 거쳐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출품작 수는 적었지만 대체적으로 알찬 내용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대상감이 없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특별상으로 <다큐인사이드 '간첩과 섬소녀'>(KBS 이호경 PD), <영상기록 남북철도, 기적의 오디세이>(기획 장형원 MBC 시사교양2팀장. 연출 김명환 (주)부뚜막교양이 대표, 송걸 PD, 작가 김정연)를 선정했습니다.

<간첩과 섬소녀>는 간첩조작사건의 단골 메뉴였던 한 '재일동포 간첩'과 1976년 거문도 간첩침투사건 당시 거물 여간첩으로 조작된 섬소녀가 부부의 연을 맺어 살아온 얘기, 결국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기까지의 과정을 담담하게 풀어놓아 더욱 묵직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호경 PD는 2019년부터 도쿄 PD특파원으로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을 취재하면서 간첩죄로 감옥에서 만난 부부의 사연을 알게 돼 부부의 삶과 재심 과정을 3년간 촬영했습니다. 장기간의 끈질긴 취재를 통해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사건, 거문도 가족간첩단 사건의 조작 사실을 적나라하게 파헤침으로써 사실에 기초한 남북 간의 오해 불식, 나아가 남북 간 상호 이해와 화해에 일조했다고 평가합니다.

<영상기록 남북철도>는 분단 후 최초로 북한의 '동해선'(동해 바다열차)과 '서해선'(평양 국제열차) 현황을 철도여행 형식을 빌어 소개했습니다.

1부 '동해 바다열차'는 금강산에서 시작해 안변, 원산, 함흥, 길주, 라진선봉, 두만강역까지 철도여행을 하면서 충석정, 칠보산 가을풍경, 항공촬영 금강산 풍경 등을 소개했습니다. 2부 '평양 국제열차'는 개성에서 시작해 사리원, 평양, 정주, 신의주까지 여행하면서 옛 오산학교 등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풍경, 역사 유적을 소개했습니다. 열차 승객, 승무원과의 스스럼없는 접촉, 대화를 통해 북녘 동포들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남북 철도 연결이 무산되고 여타 남북 간 교류 접촉이 꽁 막혀 있는 시점에서, 간접적으로나마 북녘 현장을 취재 보도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제28회 통일언론상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	정일용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심사위원	서병립	언론노조 KBS 본부 정책공방실장
	오승훈	한겨레신문 지부장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
	이윤민	SBS PD
	이형준	CBS PD
	장영주	KBS PD
	전대식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정옥식	통일문화재단 한겨레평화연구소장

다큐인사이드 ‘간첩과 섬소녀’

이호경 KBS PD



“통일언론상에 출품해 봐”

“통일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분단의 비극을 담은 이야기인데 자격이 될까요?”

방송이 나간 다음 날 CP와의 통화 내용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분단체제에서 내가 아는 한 가장 고통받은 집안의 이야기가 오히려 통일의 필요성을 강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역시 같은 생각으로 이 작품을

선정해 주신 것으로 짐작하고 감사할 뿐이다.

유영수 김영희 부부를 만나게 된 것은 2019년 도쿄 PD특파원으로 근무할 때였다. 도쿄지국 부임과 함께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사건의 피해자들을 찾아갔다. 모국을 찾았다가 잔혹한 고문과 조작으로 국사범이 되어버린 청춘들의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고통을 취재했다. 2년간의 촬영 끝에 지난해 8월 <스파이>로 방송했다. 그리고 촬영 과정에서 알게 된 ‘스파이 부부’의 이야기를 놓기가 싫었다. 부부를 다시 1년을 따라다니며 만든 다큐멘터리가 <간첩과 섬소녀>이다. 제작 기간이 3년인 셈이다.

민족적 정체성을 찾아 모국 유학을 왔다가 본인은 물론 동생마저 중형을 받았던 유영수 씨와 북에서 내려온 사촌오빠를 만났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감옥에 가야 했던 김영희 씨의 이야기를 촬영하면서 부부의 금슬에 웃고, 부부의 인터뷰에 울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이야기를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이 내내 영광스러웠다. 지난 9월 1일은 거문도 간첩 사건 재심의 선고일이였다. 전날 밤에는 걱정과 긴장으로 잠을 설쳤고, 김영희 가족 전원이 무죄를 받게 되자 그날 밤은 기쁨과 흥분으로 잠들기 힘들었다.

반세기 만에 가족의 숨통을 막고 있던 ‘간첩 낙인’은 벗겨졌지만, 그 지나간 세월 동안 부부가 겪어야 했던 절망과 고통은 보상받을 길이 있을지 의문이다. 통일언론상이 유영수 김영희 부부에게, 한국인들은 당신들의 삶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은 작은 보상이 되기를 바란다.

나로서는 ‘간첩과 섬소녀’로 20년간 몸담았던 다큐멘터리 제작 현장을 떠나게 되었다. 이 다큐멘터리로 인생의 한 단락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다.

영상기록 남북철도, 기적의 오디세이

장형원 MBC 시사교양2팀장

김명환 ‘부뚜막교양이’ 대표



장형원



김명환

통일언론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협회에 감사드립니다. 통일언론상의 제정 취지인 남북의 화해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가치로 다가오는 지금, 이 상을 수상하게 되어 한없이 기쁘기도 하지만 또한 마음 한 편이 무거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PD의 사명이면서 또한 가장 큰 즐거움은 꿈꾸고 상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의 존재 이유인 남북

의 화해 협력과 PD의 상상력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분단 이전 선조들의 상상의 무대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반도 전체 그 너머였습니다. 슬한 외침과 내부의 혼란이 있었지만, 선조들의 삶이 한반도 전체를 터전으로 했기에 그분들의 상상력은 한반도 전부와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대륙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남북의 화해와 협력이라는 통일언론상의 제정 취지가 지금 이 시점에서 더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남북한 분단의 한 공간에 한정되어 펼쳐진다면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분단 후 철책에 막혀 경의선과 동해선이 멈춰 섰고, 우리는 더 이상 기차를 타고 대륙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영상기록, 남북철도 기적의 오디세이>가 영광스럽게도 수상하게 된 것은, 꿈꿨던 도전에 대한 격려와 또 다른 상상을 펼쳐보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기적의 오디세이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일언론상
역대 수상자 명단

- 제1회 | 대상 CBS '통일로 가는 길' 제작진
- 제2회 | 대상 정길화·김환균(MBC 'PD수첩' PD) / 정연주(한겨레신문사 기자, 워싱턴특파원)
- 제3회 | 대상 한겨레신문 '아 굶주리는 북녘' 특별취재팀
특별상 정수웅(다큐서울 PD) / 박창순·류현위(EBS '통일로 가는 길' PD)
- 제4회 | 대상 정일용(연합통신 남북관계부 기자) - '안기부, 북한 원전 인공보도 문제 없다'
특별상 권문혁·김영호·이용식(MBC 'PD수첩' PD)
- 제5회 | 대상 안택호·김환균(MBC PD) '특사, 그래도 남은 문제'
특별상 손석춘(한겨레 여론매체부장) - 손석춘의 여론읽기 한겨레신문 칼럼 '한국 언론운동의 논리' 저서
박휘서(KBS PD) - '특별생방송 남과 북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 제6회 | 대상 최영준·이광조·김용신(CBS PD) - '2000년 남북평화 만들기'
특별상 이채훈(MBC PD) - 'MBC특별기획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5편 여수14연대 반란'
- 제7회 | 대상 김남태(여수MBC PD) - '아직도 못 다 부른 노래'
특별상 강지웅(MBC PD) -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푸에블로 나포사건, 전향공작과 양심의 자유'
이광조·박철(CBS PD) - '함께 사는 연습'
- 제8회 | 대상 방성근·최원석·임정아(MBC TV제작2국 PD) - '2002 평양특별공연'
특별상 한민수와 8인(국민일보 사회부 사건팀) - '한국전쟁당시 한국군인 및 경찰의 민간인 학살'
문영식 외(연합뉴스 민족뉴스 취재본부) - '북한어휘사전·북한연감·기타간행물'
- 제9회 | 대상 이채훈·김상균·배연규·이선태 (MBC PD) - MBC 정전50주년 특별기획 '끝나지 않은 전쟁'
특별상 송정록(강원도민일보 기자) - '통일시대를 준비한다-남북강원교류'
이욱정(KBS PD) - KBS '한국사회를 말한다-국방비 증액, 군축은 불가능한가'
- 제10회 | 대상 EBS 오한샘·성기호·김동렬 PD - '코리아 코리아'
특별상 MBC 유현 차장 - '1994년 그 해 여름 조문파동과 공안정국'
여수MBC 김남태 부장 - 여수MBC 창사34주년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가슴속에 묻은 노래 山洞哀歌'
- 제11회 | 대상 SBS 제작본부 박기홍 PD - '나는 가요 - 도쿄, 제2학교의 여름'
특별상 SBS 제작본부 오기현 PD - '조용필 평양에서 부른 꿈의 아리랑'
- 제12회 | 대상 KBS 공영철 PD - 'KBS스페셜-현지르포 2006 북한, 중국 자본에 종속되는가'
특별상 마산MBC 김현 보도국 기자 - 특집 다큐멘터리 '윤이상, 하늘에 새긴선율'
- 제13회 | 대상 KBS 나상엽 PD·장영복 조선중앙방송 연출가 '사육신'
- 제14회 | 대상 진주MBC 심길보 PD - 진주MBC 창사 40주년 특별기획 HD다큐멘터리 '빨치산' 2부작
특별상 KBS 윤성도 PD - KBS스페셜 2008 북한 식량위기 '굶주림의 정치경제학'

- 제15회 | 대상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 한겨레 기획 연재물 '냉전의 추억'
- 제16회 | 대상 EBS 김한중 PD - 지식채널e '통일합니다, 저는 북한사람입니다. 아주 오래된 소원, 고무신'
- 제17회 | 대상 해당작 없음
특별상 한겨레신문 송경화 기자 - '탈북자의 아메리칸 드림' 4부작
KBS제주 강인창 PD - '4·3 의인 김익렬'
- 제18회 | 대상 해당작 없음
특별상 EBS 다큐프라임 - '탈북, 그 후'
- 제19회 | 대상 KBS 남진현 PD - 추적 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전말'
특별상 CBS 오현숙 PD - '정전 60년 남북공존의 길을 찾아서' 2부작
전병역·손제민·송윤경·심혜리 경향신문 기자 - '북한 인권, 진보와 보수를 넘어' 9부작
- 제20회 | 대상 뉴스타파 최승호PD, 정유신·오대양·최형석 - '국정원 간첩조작 연속보도'
특별상 오마이뉴스 신은미 기자 - '재미동포 아줌마, 또 북한에 가다'
- 제21회 | 대상 해당작 없음
특별상 제주MBC 김지은 PD 특집다큐 -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싶다'
EBS이상범 PD - '통일채널e'6부작
- 제22회 | 대상 뉴스타파 박정남 독립PD - '목격자들-개성공단' (2부작)
특별상 EBS 정성욱 김병완 김성목PD 이혜진 방송작가 - '딱 좋은 친구들'
울산MBC 이영훈 PD '돌직구40 - 신불산 빨치산을 말한다'
- 제23회 | 대상 KBS 양승동·최진영 PD - 'KBS스페셜 오래된 기억, 6.15남북정상회담'
특별상 SBS 배정훈 PD - '그것이 알고싶다 도둑골의 붉은 유령'
- 제24회 | 대상 SBS 오기현·이윤민 PD 'SBS스페셜 - 84년생 김정은과 장마당세대'
특별상 내일신문 김기수·김상범·정재철 기자 -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20회 연속 기획'
KBS 구상모 PD 'KBS 특별다큐멘터리 - 우리가 태어난 곳'
- 제25회 | 대상 KBS 유재우 PD 'KBS스페셜 - 어느 편이나 묻는 당신에게'
특별상 G1강원민방 김태정 조민경 PD - 'DMZ스토리'
- 제26회 | 대상 SBS 김종일 남북교류협력단 부장, 풀끼리프로덕션 최정호 대표, 서재호 PD - '샘 해밍턴의 페이스북'
특별상 6.15 공동선언 남측위 언론노보 고승우 정책위원장 - '한반도 관련 보도물'
제이원더 남택진 PD, 이진성 PD, 윤승희 송혜진 작가 - 웹드라마 '오늘도 일 없습니다'
- 제27회 | 대상 뉴스1 서재준, 양은하, 이설 기자 '기획연재-시선의 확장'
특별상 김성진, 박정남, 권오정, 박훈규 독립PD - 'KBS 뉴스타파 공동기획 - 산자여 따르라! 백기완'

제3부

제34회 안중필 자유언론상

안중필 자유언론상 심사평
수상 소감 —
본상 한겨레 기후변화팀
특별상 경남도민일보 김다솜, 최환석 기자
역대 수상작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자유언론실천재단

제34회 안중필 자유언론상 심사평

이완기 심사위원장, 세인포럼 회장

제34회 안중필 자유언론상 심사위원회는 모두 5건의 후보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5건의 후보는 뉴스버스에서 '고발 사주' 사건을 보도한 <미디어스 전혁수 기자>, 5·18민주화운동 관련 '항쟁과 언론'을 기획·보도한 <광주MBC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및 영상제작센터>, 젠더 기획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다' 등을 보도한 <경향신문 젠더 기획특별취재팀>, 2020년 4월 한국 언론사 중 최초로 '기후변화 뉴스룸'을 꾸려 기후 변화와 관련한 보도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 <한겨레 기후변화팀>, '노동자의 외침, 메이데이 연속 기획 보도'를 통해 노동 현장의 절실한 사정을 전한 <경남도민일보의 김다솜, 최환석 기자> 등입니다.

이 중 전혁수 기자의 '고발 사주' 보도는 2020년 총선 당시 손주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특정 정당의 몇몇 정치인과 비판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여 상대편 당에 제공함으로써 고발을 사주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기사입니다. 전혁수 기자가 2021년 9월 2일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한 이후, 여타의 매체에서 수백 건의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등 사회적 충격은 일파만파로 번졌고 손주성 검사는 공수처의 기소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검사가 선거를 앞두고 현실 정치에 깊이 개입하고 이에 정치권이 동조한 것은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뒤흔든 행위입니다. 심사위원들은 '고발사주' 기사가 검찰과 정치권의 잘못된 행태에 경각심을 심어준 의미 있는 보도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는 원선의 개입 등 사건의 전모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인 점을 고려해 향후 추이를 더 지켜보고 판단하자는데 심사위원 전원도 동의해 이번 수상 후보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광주MBC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및 영상제작센터>의 기획보도 '항쟁과 언론'은 당시 광주 지역 언론인의 육성 인터뷰를 통해 계엄이라는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진실을 알리지 못했던 언론인으로서의 안타까운 심정과 그들이 처했던 곤경을 조명한 것으로 심사위원회는 새로운 관점의 보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MBC 화재를 정

면으로 다루고 화재의 원인 규명이 아직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밝힌 것은 '역사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보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바라보는 일반 시민의 시각이 없었던 점은 아쉬우며, 아울러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한 굵직한 언론보도가 그동안 수차례 나온 점 등을 고려해 수상 후보에서는 빠기로 했습니다.

오늘날 언론은 극심한 상업주의와 극단적인 정파성으로 오염되었고 여야 정치권의 시시콜콜한 말싸움이 지면과 화면을 온통 차지하는 등 언론의 신뢰도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런 속에서 진실을 추구하고 권력을 감시·견제해야 할 언론 본연의 역할은 난감한 일입니다. 장삿속에 빠진 언론은 자 극적이고 선정적인 이슈에만 매달리고, 일부 언론은 정론을 외면한 채 아예 특정 정파를 대변하고 있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 결과 거대한 시대 변화의 물결 속에서 기후변화, 에너지, 세계 열강의 움직임, 남북의 평화, 성차별, 노동인권, 지역 소외 등 언론이 조명해야 할 정작 중차대한 의제는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심사위원회는 이 시대 저널리즘의 과제는 무엇이고, 앞으로 저널리즘이 관심 가져야 할 의제는 무엇이며, 오랫동안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언론의 사각지대는 무엇일까 등의 문제에 천착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중에서도 기후 변화의 문제, 성차별의 문제, 노동자 및 지역 소외의 문제 등 세 가지 이슈를 놓고 장시간 토론을 벌였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의 의견이 나왔고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볼 수 없는 의제들이지만 심사위원회는 치열한 논의 끝에 본상으로 <한겨레 기후변화팀>, 특별상에 <경남도민일보 김다솜, 최환석 기자>를 선정했습니다.

기후 변화는 인간의 삶과 생존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미래의 후손들, 나아가서는 지구촌에 사는 생명체 전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이 시대의 매우 중차대한 이슈입니다. 그러함에도 언론의 관심에서는 매우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것은 우리 언론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겨레 기후변화팀>은 한국 언론 최초로 기후변화팀을 꾸렸고, '그레타 툰베리 국내 언론 최

제34회 안중필 자유언론상 심사평

초 인터뷰', '기후 변화와 감염병, 자연의 반격', '기후 위기와 인권' 등의 기획 기사를 통해 기후 변화가 인류에 미칠 가공할 영향을 알리고 기후 변화 운동의 중요성, 운동가들의 활동 등을 조명하는 한편 '기후변화&' 누리집(hani.co.kr/arti/climate)을 통해 다양한 교육 영상과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겨레 기후변화팀>의 기사와 칼럼, 영상자료 등은 언론의 공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의 표본이며 실추된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합니다. 심사위원회는 이러한 <한겨레 기후변화팀>이 기후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치·사회적 관심을 일깨웠고 우리 언론에도 절실한 문제의식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언론의 지향점 측면에서도 의제 설정의 패러다임 변화를 일으켰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한겨레의 이러한 언론 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언론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심사위원회는 <경남도민일보 김다솜, 최환석 기자>가 우리 사회의 오랜 쟁점인 쯤 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노동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복무한다는 언론의 사명감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며 높은 수준의 인내심을 요하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다솜, 최환석 기자는 '노동자의 외침, 메이데이 연속 기획보도'를 통해 올해 4월과 5월 '노동절 참사 후 5년...피해자만 있고 책임자는 없다', '우리는 고통 속에 사는데...사과 한번 없었다', '죽음 본 그날 이후...일·가정 산산이 부서졌다' 등 8건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노동절을 전후해 보도된 이 기사들은 한국 언론의 보도 사각지대인 노동인권의 문제를 집요하게 묻고 늘어짐으로써 노동자들의 궁핍한 삶과 열악한 인권 실태를 가감 없이 담아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특히 재정적으로 어렵고 광고의존도가 높은 지역 언론으로서 거대 재벌에 맞선 노동인권 보도는 쯤 처럼 의제화하기 어려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았다는 점을 높이 샀습니다. 이러한 과감한 보도가 가능했던 것은 도민들이 십시일반 주주로 참여해 만든 소유구조, 민주적인 노사관계, 내부의 조직문화 등이 두루두루 작용했기 때

문이며 이는 여타의 언론사와 언론정책 당국이 참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평가됩니다.

한편 <경향신문 젠더 기획특별취재팀>의 젠더 관련 시리즈 보도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등 현안과 맞물려 매우 시의적절한 보도로 평가되었지만 최종 수상작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이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수상한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아깝게 탈락하신 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4회 안중필 자유언론상 심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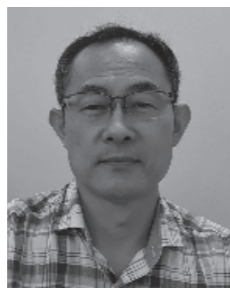
심사위원장	이완기	새언론포럼 회장
심사위원	양한수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
	이명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
	유숙열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박강호	자유언론실천재단 상임이사

한겨레 기후변화팀

이근영, 김정수, 김민제, 최우리 기자



이근영



김정수



김민제



최우리

수상 소식을 전해 듣고 ‘우리가 이렇게 큰 상을 받아도 될까’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할수록 상의 의미가 무겁게 다가와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정말 많이 감격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기후변화 기사를 잘 쓰기 위해 혼자 좌절하고 눈물지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슬픔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언론이 주목하지 않았던 분야였기에 어떤 보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례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첫번째 독자인 편집국 동료들에게 기후변화 기사의 의미를 잘 설명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 앞 술집에서, 회의실에서, 바쁜 마감시간 핸드폰 너머로, 기후변화 뉴스의 가치와 의미를 설명하는 일이 팀장인 저의 일과 중 상당 시간을 차지했고 야근과 새벽 노동을 하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보도를 하면서 즐거웠고 보람있었습니다. 취재로 수집한 사실의 조각들로 진실을 그려내는 좋은 기사만 쓴다면 독자들이 알아봐줄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실들이 가리키는 미래 방향에 대해 앞서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기자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기후변화팀 기사를 평가해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쓰는 기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의심이 들며 흔들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자들보다 앞서 기후변화 문제에 눈을 뜬 시민, 활동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기후변화 문제에 깊이

공감하고 대응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 덕분에 저희팀 기자들도 기사를 쓰며 많이 배웠고 참 행복했습니다. 기후환경 기사를 쓰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뜻깊은 상을 주신 이유를 곱씹어봤습니다. ‘기후 문제에 대한 한국 언론의 새로운 접근과 언론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발했다.’ 수상자는 한겨레 기후변화팀이지만 그동안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환경, 과학 기자들의 노력을 한국 사회에서 인정하는 것이라는 나름의 해석을 해봅니다. 특히 30년 넘게 한국 환경, 과학 기자로서 길을 개척해오신 존경하는 이근영, 김정수 선배와 함께 수상하게 돼 후배로서 더없이 기쁩니다.

언론 자유를 위해 선배님들이 펜을 꺾지 않으셨기 때문에 후배인 저도 좀 더 나은 사회를 꿈꾸며 기자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할 수 없기에 이를 적용하고 극복하기 위한 각국 사회의 대응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환경 분야의 기사는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언론인이란 마땅히 기록하고 고발해야 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기자라는 직업의 무게를 느끼게 해주시는 <한겨레> 선배동료들과 기후변화 문제에 동의하고 대응 방향을 고민하는 많은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쓰겠습니다.

(대표 집필 : 최우리)

김다솜, 최환석 기자



김다솜

언제나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회사 동료들과 민주적인 조직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경남도민일보에 주신 상이라 생각하고 달갑게 받겠습니다.

경남도민일보는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기사를 쓰고자 후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1000명 남짓입니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후원제를 택하는 언론사는 자본이 아닌 민중을 위해 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 덕에 이 기사를 쓰겠다 마음먹을 수 있었습니다. 적은 월급에도 회사 다니는 보람이 큰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자신처럼 불행한 기억을 안고 사는 산재 노동자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용기를 내주신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자들에게 감사합니다.

마음 속 깊이 숨겨둔 불행을 꺼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이분들은 자신에게 가장 아프고, 힘들고, 떠올리기 힘든 기억을 꺼내주셨습니다.

항상 제 곁에 있는 나의 동지 최환석 기자와 산재 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에도 감사합니다. 함께 하는 모든 날이 영광입니다.

이 기획의 첫 기사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는 이 조난 신호에 응답해야만 한다'.

앞으로도 우리는 약한 자의 조난 신호에 응답하는 기자로 살겠습니다. 이 상에 응당한 행동이라 여기겠습니다.

그게 안중필 선배의 정신을 잇는 길이라 믿습니다. 꺾이지언정 굽히지 않겠습니다.



최환석

1987년 1월 14일 새벽에 났습니다.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박종철 열사가 숨진 새벽쯤입니다. 마침 박 열사 고향인 부산 서구 아미동 근처에서 대학 캠퍼스 생활도 했습니다. 웃음을 살지 모르겠지만, 무슨 무거운 훈장마냥 스스로 부여한 삶의 의미이자 연결고리입니다.

의무경찰로 군 복무를 했는데, 2008년 촛불집회 즈음이었습니다. 서울도 들렀었는데, 그때 고층 건물 사이로 붉은 물줄기를 보고 문득 사회현상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해야 의문이 풀릴까 고민하다가, 경남도민일보 사시인 '약한 자의 힘'에 이끌려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히,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가 났을 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1면에 실렸을 사고 현장 사진만 명징합니다. 사고의 경중을 인지하지 못한 듯합니다.

부채 의식에 노동 분야를 맡으면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는 기사로 꼭 한번 다루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동지와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도움으로 전달자 뭇은 겨우 치러냈습니다.

수상 소식을 듣고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피해자 목소리가 잊히지 않고 한 번 더 읽힐 테니까요. 모두, 온 힘을 짜내 그날을 다시 떠올려준 생존자 덕입니다. 모두 더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길.

어머니께 수상 소식을 전했더니 축하 대신 "고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박 열사, 안중필 선배, 그리고 동료들 이름에 먹칠 않고 고맙다는 말 듣는 기자로 살아남겠습니다.

안중필언론
자유상
역대 수상자 명단

- 제1회 | 본상 김주언 한국일보 기자 - '보도지침' 폭로
- 제2회 | 본상 부산일보 노조 - 편집권 독립운동
- 제3회 | 본상 권영길 언론노련 위원장 - 언론노조운동 주도
- 제4회 | 본상 김종배 동아일보 편집국장 - 편집권 독립 주장
- 제5회 | 본상 MBC노동조합 - 공정방송 쟁취 50일 파업
- 제6회 | 본상 한겨레신문 편집국 - 국민주신문 창간과 정론직필
- 제7회 | 본상 충청일보 편집국 - 언론 공기능 수호
- 제8회 | 본상 최문순 전 MBC노조위원장 - MBC의 민주화 위한 노조 활동
- 제9회 | 수상자 없음
- 제10회 | 본상 홍건표 전 AP통신 서울특파원 · 정호상 전 아사히신문
서울특파원 · 심재훈 전 뉴욕타임스 서울특파원 · Don Oberdorfer 전 워싱턴포스트 서울특
파원 - 1974~1975년 한국의 자유언론운동을 적극적으로 취재보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림
- 제11회 | 본상 바른지역언론연대 - 풀뿌리 지역신문 활성화를 통해 언론민주화에 기여
- 제12회 | 본상 KBS '추적60분'제작팀(1999년 10월 ~ 2000년 10월) -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과 이슈
를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날카롭게 파헤침
- 제13회 | 본상 MBC '미디어비평'팀(2001년 4월 ~ 2001년 9월) - 언론계의 현안과 문제점을 심도있
게 다룸으로써 언론민주화에 기여함
- 제14회 | 본상 유상하 · 김재용(MBC 보도국 사회1부 기자) - MBC 9시 뉴스데스크의 서해교전 관련
보도
특별상 한민수 외 8인(국민일보 사회부 사건 팀) -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과 군사정권 의문사
- 제15회 | 본상 KBS '한국사회를 말한다'팀 황용호 외 15인(KBS) - <심판받지 않는 권력, 대법원>, <정치
자금, 판도라의 상자> <일제하 민족언론을 해부한다>, <최후의 망명객들>, <국가보
안법> 등
- 제16회 | 본상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특별상 정길화, 김영호, 김환균, 박정근, 유 현, 이재훈, 장형원, 한학수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제17회 | 본상 손석춘(언론인), 특별상 : 민족문제연구소
- 제18회 | 본상 시사저널 기자 일동
- 제19회 | 본상 KBS 미디어포커스 팀
특별상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제20회 | 본상 경향신문 편집국
특별상 YTN노동조합 / 아프리카
- 제21회 | 본상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특별상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 제22회 | 본상 MBC '4대강, 수심 6m의 비밀' 제작팀
- 제23회 | 본상 시사주간지 <시사IN> 편집국
- 제24회 | 본상 탐사저널리즘 <뉴스타파> 제작진
- 제25회 | 본상 한겨레신문 정환봉 기자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연속 단독보도>
특별상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 제26회 | 본상 한국방송(KBS) 보도본부 인사검증 TF - 김귀수, 이병도, 정수영, 김연주, 홍성희 기자
- 제27회 | 본상 미디어오늘
- 제28회 | 본상 뉴스타파 '훈장과 권력' 제작팀
특별상 중앙일보 권석천 논설위원
- 제29회 | 본상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성재호),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김
연국)
특별상 이용마 MBC 해직기자, 김민식 MBC PD
- 제30회 | 본상 MBC <PD수첩> 조계중 2부작, '큰 스님께 묻습니다', 강지웅 부장, 박건식, 한학수, 강호
임 PD, 정재홍 작가
특별상 박진수 전 언론노조 YTN 지부장
- 제31회 | 본상 KBS <저널리즘 토크쇼 J> 제작진(제작 : 김양순 / 연출 : 은준수, 송수진, 신지원 / 취재
: 최경영, 김빛이라, 김덕훈 등)
특별상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 제32회 | 본상 김이택 <한겨레> 대기자
특별상 <뉴스타파> '국회 세금 도둑' 제작팀(박중석, 최윤원, 임선웅, 연다혜, 강현석, 신영철,
이상찬, 정형민 등),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
무국장, <함께하는시민행동> 채연하 사무처장
- 제33회 | 본상 영화 '표적' 니시지마 신지 감독
특별상 JTBC 심층집중보도 '518 북한특수군 김명국 추적 보고' 봉지욱, 채승기, 라정주, 송우
영 기자

별첨

평화통일과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준치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명단

평화통일과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보도 제작 준칙

1995. 8. 15 (제정)
2017. 10. 24 (개정)

전문

분단된 조국의 통일은 온 겨레의 염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언론은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 보도·제작에서 화해와 신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보다는 불신과 대결의식을 조장함으로써 반통일적 언론이라는 오명을 씻어 내지 못했다. 이같은 반성 위에서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및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3단체는 해방과 분단 50주년을 맞아 우리 언론이 통일언론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짐으로 공동의 보도·제작 규범을 제시한다. 우리는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정신에 따라 먼저 남과 북의 평화공존과 민족동질성 회복에 힘쓰며, 민족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궁극적으로 남과 북이 단결하여 자주적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도록 노력한다.

총강

1. 우리는 대한민국(약칭: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약칭:조선)으로 나누어진 남과 북의 현실을 인정하며, 상호존중과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상대방의 국명과 호칭을 있는 그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우리는 냉전시대에 형성된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보도·제작함으로써 남북 사이의 공감대를 넓혀 나간다.
3. 우리는 남북관계 보도·제작에서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장애를 타파한다.

4. 우리는 남과 북의 우수한 민족문화 유산을 공유하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기사 및 프로그램 개발에 힘쓴다.
5. 우리는 통일문제에 관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하여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한다

보도실천요강

1. 남북 긴장해소 노력남북간의 평화를 저해할 수 있는 군비증강 등 제반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남북간 긴장 및 불의의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이끌어 내는 데 초점을 맞춰 보도한다.
2. 인물 호칭·직책 존중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물에 대한 호칭은 대한민국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명 다음에 직책을 붙여 호칭한다.
3. 관급자료 보도 유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관급 보도자료의 무절제한 인용·전재를 피하고 최대한 확인절차를 거쳐서 보도한다.
4. 남북 언론인 간 합의사항에 유의기사 작성·보도 시 남북 언론인 간 합의사항에 유의한다.(참조 : 2006, 2007, 2008년 합의문)
5. 외신보도 신중 인용외신을 활용한 특정세력의 목적성 여론조성을 경계하며, 제3국이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외신보도는 인용하지 않는다.
6. 1차자료 적극 활용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문·방송·통신 보도와 잡지 등 1차 자료에서 보도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적극 활용한다.
7. 각종 추측보도 지양국내외 관계자들이 무책임하게 유포하는 각종 설은 보도하지 않는다. 다만 취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사진·화면 사용 절제해당기사와 무관한 자극적인 화면이나 사진을 사용하지 않으며, 냉전과 대결의 시각보다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노력한다.

9. 희화적인 소재 지양남북간 언어, 문화, 생활의 차이와 상호 이질감을 우리의 잣대로 평가하거나 보도에 희화적 소재로 삼지 않는다.
10. 망명자의 증언 취사망명자의 증언은 그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사화하도록 한다. 전언이나 추정 등을 기사화해야 할 경우는 ‘전언’, ‘추정’ 등을 명기한다.

제작실천요강

1. 정보제공 적극 편성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프로그램 편성시 형식적·소극적 편성에서 벗어나 다큐멘터리·드라마·오락물 등 각 장르별로 적극 편성하며, 남북 관련 긴급 혹은 특집프로그램 편성시 정치적 의도가 없는지 특히 유의한다.
2. 통일지향 가치 추구기획, 출연자 선정, 편집 등의 제작과정에서 민족동질성 회복, 화해·공존공영의 증진, 통일의 축진이 구현되도록 적극성을 갖고 제작에 임한다. 프로그램 제작시 여러 가치가 충돌할 경우 인간 존엄성 존중, 민족이익 수호, 민족화해 증진 등의 가치를 판단의 우선가치로 삼는다.
3. 냉전시대 관행 탈피냉전시대에 형성된 내면적 자기검열, 습관화된 분단의식, 누적된 선입견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또 냉전의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요·가곡·드라마·영화 등의 방송을 피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불필요한 화면을 사용하지 않는다.
4. 상업·선정주의 경계상업주의와 선정주의를 경계하며, 안일하고 편의적인 제작태도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나아가 현재의 모든 방송행위가 미래의 통일 민족문화와 직결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 제작에 임한다.
5. 다원주의 가치반영사회적 가치나 의견 등의 메시지를 시청취자에게 전달할 때는 제작진이 단정적 결론을 내리기보다 시청취자가 듣고 보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가능한 한 가감없이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6. 보도활용 제작 신중국내외 매체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보도를 근거로 가십·풍트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보도의 정확성, 취재원의 신뢰도, 보도 이면에 게재되어 있을 수 있는 정치적 의도 등을 충분히 검증한 뒤 방송하며, 무분별하게 인용하여 민족화합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화하지 않는다.
7. 생활문화 적극 소개정치적 통합을 넘어서는 남북 주민간의 사회·문화적 통합이 진정한 최종적 통일임을 인식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의 생활과 문화를 프로그램 소재로 적극 채택한다.
8. 능동적인 자료 접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시 정보의 편중성·부족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작진 스스로 노력한다. 1차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각 분야 연구자 등 폭넓은 인적자원 확보에 각자가 능동적으로 힘쓴다.
9. 남북차이 이해 노력언어·문화·생활·관습·가치관 등에서의 남북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노력하며, 가능한 한 이 차이들을 희화적 소재로 삼지 않도록 한다.
10. 남북 동질성의 부각남북의 차이점보다는 같은 점을, 과거보다는 미래를 부각시킴으로써 미래지향적·통일지향적 방향으로 프로그램 제작에 힘쓴다.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명단

1995. 8. 15 (제정)
2017. 10. 24 (개정)

동아투위 위원 113인

강정문 권근술 김덕렴 김두식 김성균 권도홍 김육한 김유주
김인한 김재관 김진홍 김창수 박노성 배동순 성유보 송재원
신양휴 신정자 신태성 심재택 안병섭 안상규 안성열 안종필
오정환 우승용 윤활식 이계익 이병주 이의직 이인철 조민기
조성숙 조양진 홍선주 홍종민 홍취자 황명걸
(이상 고인 38분)

강운구 고준환 국홍주 권영자 김기경 김대은 김동현 김명걸
김민남 김병익 김순경 김양래 김언호 김영환 김종철 김창선
김태진 김학천 남기재 맹경순 문영희 박경희 박순철 박종만
박지동 서권석 서창식 송경선 송관률 송준오 신영관 신해명
심정섭 양한수 오봉환 유영숙 윤석봉 윤성욱 이경자 이규만
이기중 이길범 이동운 이명순 이문양 이부영 이영록 이재민
이종대 이종덕 이종욱李宗郁 이지선 이태호 이해성 임부섭
임수진 임응숙 임채정 임학권 장윤환 정동익 정연주 정영일
정홍렬 조강래 조영호 조학래 최남경 최학래 한현수 허 육
홍명진 황윤미 황의방
(이상 75명)

명예위원 13인

고 천관우 위원(전 동아일보 주필)
고 송건호 위원(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고 제임스 시노트 신부(한국명 진필세)
고 백기완 선생
이해동 목사
함세웅 신부
홍건표(AP통신),
정호상(아사히 신문),
다메다 에이이찌로(아사히 신문),
오구리 게이따로(아사히 신문),
에자와 고지(교도 통신),
오노다 아끼히로(교도 통신),
후루노 요시마사(마이니찌 신문)
(이상 13명)

